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미술학 석사 학위논문

상투적 감성 이미지의 도피적 역할에 대한 작품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조소전공

권 민 철

상투적 감성 이미지의 도피적 역할에 대한 작품 연구

지도교수 박 제 성

이 논문을 미술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조소전공
권 민 철

권민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심 상 용 (인)

부위원장 이 종 건 (인)

위 원 김 민 애 (인)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상투적 감성 이미지로 정의되는 감성적 측면이 두드러지는 일상 이미지를 노스탤지어의 개념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을 토대로 상투적 감성 이미지를 활용한 작품 제작을 통해 일상적 이미지가 현실로부터 멀어지는 도피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한다.

나에게 일상이란 항상성(恒常性)을 지녀 익숙한 공간에서 우리가 마음먹으면 반복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일상 속에서 직관적으로 마음이 끌리는 풍경이나 사물의 사진 촬영을 지속하면서, 유사한 상투적 소재의 사진들이 온라인 환경 안에서 '감성'이라는 말과 함께 생산되고 유통되는 현상을 보았다. 이러한 관점을 수용해 논문에서 나의 사진을 중심으로 예사로운 피사체를 담은 유사한 사진들을 상투적 감성 이미지로 범주화하고, 상투적 감성 이미지의 표면 아래 무의식적으로 공유되는 보편적인 서정성을 찾는다.

상투적 감성 이미지가 현실로부터 유리되면서 노스탤지어로 대표되는 감성적 측면이 드러난다는 추측을 바탕으로 상투적 이미지를 담는 사진의 특성에 대해 분석한다. 사진으로 현실과 분리된 상투적 감성 이미지에 개입되는 노스탤지어를 현재와 이상적 상태의 불일치로 인한 거리감의 관점에서 살피고, 나아가 도피의 목적지인 이상향으로서 기술한다.

수집한 상투적 감성 이미지를 활용해 제작한 나의 작품을 중심으로 노스탤지어를 시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사용한 요소와 표현을 정리한다. 제작된 작업을 바탕으로 본인이 일상생활 안에서 경험한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특별하게 느껴졌던 순간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 상투적 감성 이미지가 하나의 개인적 도피처로 작동할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하려 한다.

주요어 : 상투적 감성 이미지, 도피적 역할, 사진, 노스탤지어, 감성
학 번 : 2019-27474

목 차

국문 초록 ····· **3**

1. 들어가며 ····· **5**

2. 일상적 이미지의 상투적 감성 획득 방식 ····· **7**

2.1 생활 속에서의 촬영 방식과 이미지 소재 ····· 7

2.2 개인 사진첩의 생산 환경 변화와 공유 ····· 10

3. 상투적 감성 이미지의 도피적 가능성 ····· **13**

3.1 풍경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미지 ····· 13

3.2 상투적 이미지 안의 노스탤지어와 거리감 ····· 15

4. 상투적 감성 이미지의 심상 강조 ····· **21**

4.1 색과 시간의 흐름을 통해 서정성 드러내기 ····· 21

4.2 직관적 재현과 반복되는 표현 형식 ····· 27

5. 나가며 ····· **34**

도판 목차 ····· **36**

1. 작품 목차

2. 참고 도판 목차

참고 문헌 ····· **38**

Abstract ····· **39**

보존용 학위논문 정오표

페이지	정정 전	정정 후
p. 27 : 11	색을 만들고 출력한 OHP필름을 이용해 제작했다(참고 도판 4).	색을 만들고 출력한 OHP필름을 이용해 제작했다(참고 도판 5).
p. 27 : 18	여기에 <따뜻한 피자> (참고 도판 5)라는 수집한 상투적 감성 이미지를 이어 붙인 영상 <따뜻한 피자> (작품 1)와 같은 이름을 지었다.	여기에 <따뜻한 피자> (참고 도판 6)라는 수집한 상투적 감성 이미지를 이어 붙인 영상 <따뜻한 피자> (작품 1)와 같은 이름을 지었다.

1. 들어가며

본 논문은 개인의 일상 속에서 촬영한 사진을 기반으로 제작된 작품들을 통해 상투적 이미지와 그것에 내포된 감성적 측면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에게 하나의 도피처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했다.

연구에서 상투적 이미지로 정의되는 일상적 이미지와 도피처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어휘로 보이지만, 연구자는 생활 반경 안에서 여러 풍경과 사물들을 마주하며 오히려 사회적 환경과 사람이 제외된 것들로부터 안정감을 느끼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한 사람을 구체화하는 여러 사회 집단들이 주는 소속감, 유대감과 동시에 부여하는 부담감이라는 양가적 복잡함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의 통로로 작용했다.

구체적인 서사가 휘발되어 개성이 부재하는 상투적 이미지를 통해 어떻게 개인이 위안을 얻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또한 온라인 환경 안에서 나 이외에 유사한 일상적 이미지를 생산하는 타인들을 보고, 어떤 심리가 상투적 이미지의 생산에 작용했을지 상상해 보며 상투적 이미지의 정적인 일상적 표면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상투적인 피사체를 담은 이미지의 단순한 구성 아래 존재하는 서정성의 작동방식에 대해 상상하고 추정하게 했다. 개인이 촬영한 상투적 이미지를 작품의 전면에 드러내고, 이를 분석한 시각 요소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입체 작품을 제작했을 때, 결과물에서 서정적 측면이 전해진다면 상투적 감성 이미지의 작동 원리에 대한 간접적인 확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글은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작업 제작 과정과 함께 찾아가는 순서로 구성했다. 2장에서는 연구자가 촬영한 사진을 중심으로 일상적 이미지의 소재 분석을 통해 본 논문 안에서 상투적 이미지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개인 사진의 생산과 유통 환경의 변화와 주로 소셜 미디어 안에서 관찰되는 무의식적으로 공유되는 서정성과 결부된 상투적 이미지를 통해 상투적 감성 이미지를 정의한다. 3장에서는 이러한 상투적 감성 이미지가 풍경으로부터 독립되어 하나의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사진 매체와 노스탤지어의 구조를 기반으로 연구자의 경험과 함께 제시한다. 4장에서는 연구자가 수집한 상투적 감성 이미지 소재를 입체 조형물로 제작했을 때, 노스탤지어를 발현하여 도피성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시각적 표현 방법들에 대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작한 작품의 과정 중심으로 연구 내용을 정리하였다.

2. 일상적 이미지의 상투적 감성 획득 방식

2.1 생활 속에서의 촬영 방식과 이미지 소재

연구자가 수집한 상투적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선 그러한 일상 이미지를 수집하는 행위인 촬영 순간에 의식의 작동방식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촬영의 시작은 생활 반경 안에서 이동하고, 스쳐가는 것들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출발한다. 생활 반경에는 단순한 이동을 넘어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나오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사람이 많은 식당에서 식사를 기다리는 등의 여러 행위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 중 이동은 특별히 중요한데, 그것이 나의 사진 촬영 동기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이동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신체의 위치가 변하는 과정이며 필수적으로 시간의 흐름이 감각된다. 이는 눈앞의 광경을 '곧 다시 보지 못할 것'으로 자기 스스로 확신하게 만들어, 다소 조급한 마음이 들게 한다. 조급한 마음은 '다시 보고 싶은'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의 사건 종료 후에도 해당 이미지를 현실에 지속시키고 싶은 마음이다. 이러한 흐름은 짧은 순간 오늘날 가장 쉽고 직관적으로 이미지를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인 촬영을 하도록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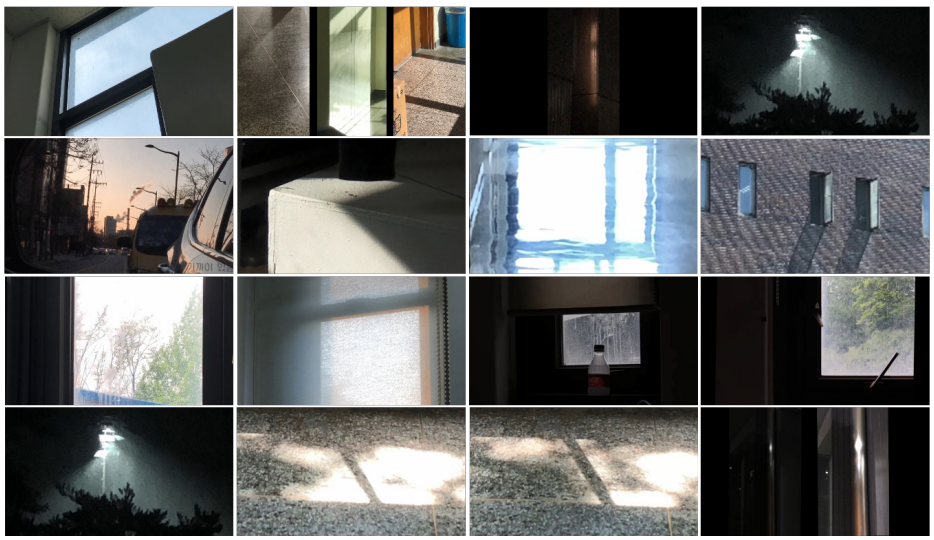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촬영은 대규모 행사나 불연속적 이벤트의 경험적 희귀성에 기인한 기념 행위로서 이루어진다.[1] 하지만 내가 '다시 보고 싶은 것'들로 촬영한 피사체들은 생활 반경 안에서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 경험으로서 이러한 희귀성이 없음에도 촬영하였다. 따라서 나는 일상 이미지의 촬영과 사진을 생활 공간 속 신체의 이동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직감했던 시간의 비가역성에 대한 정서적 감응 현상으로 이해하고, 이것이 나의 주된 촬영 동기가 아닐까 생각했다.

---

[1] 예를 들면 결혼, 졸업, 공연, 생일 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상적 이미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하나의 사건 중심의 사실 기록이라기보다,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감각되는 순간에 대해 의식하는 감정적 표현 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촬영된 이미지들은 자연스레 일시적이고 변화한다는 특징을 지닌 피사체를 담고 있다.

내가 촬영한 피사체는 주로 흔들리는 빛이나, 곧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색 등 시간의 흐름에 대한 상상이 발생하는 소재이다. 피사체들은 일시적이란 특징이 있지만, 생활 반경 안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흔히 볼 수 있다는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 작가적인 개성이 발휘된 사진이라기보다 일반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촬영했을 소재들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느꼈다. 나는 일주일의 시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생활 반경 안에서 마음이 이끌렸던 소재들을 촬영하고, 그것을 짧은 영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작품 1).



〔작품 1〕 <따뜻한 피자>, 2019, 아이폰으로 촬영한 싱글 채널 비디오, 무음, 3분
*비디오 스틸 이미지

제작 과정을 통해 파편적으로 존재했던 시선들을 모으면서 스스로가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던 직관적으로 선호하는 미감과 대상에 대한 단서

를 보다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선호는 감정적 인상으로서 내면에 존재했기 때문에, 따라서 평소 타인에게 설명하기 위한 언어적 표현에 어려움을 느꼈다. 한편 <따뜻한 피자> (작품 1)는 사람들에게 “감성적이다.”, “카메라의 움직임이 없어 대상을 촬영하는 3-5초의 천천히 흐르는 시간이 상상된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러한 내용에서 ‘감성적’이라 얘기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 생각했다. 일시적인 피사체를 붙잡으려는 행위가 지닌 낭만적인 성격과 상투적인 사진이 일반적이란 특징에서 비롯되는 보편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떠올렸다.

상투적 이미지를 설명하는 일련의 수식어인 ‘감성적’, ‘노스탤지어’, ‘순간’, ‘일상’과 같은 단어들에서 나는 모호함을 느꼈다. 이러한 모호함을 해소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것이 나에게 선호되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됐다.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 소재를 촬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타인의 사진 속에서 유사한 상투적 이미지를 찾으려 시도했다. 상투적 이미지를 촬영하는 주체의 감각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이 안에서 공유되는 감정적 정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제프리 베첸(Batchen Geoffrey, 1956~)은 사진의 역사에서 제외되었던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며, 익명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사람들에 의해 촬영된 일상적 사진들을 ‘버내큘러 사진’(Vernacular Photography)으로 정의했다. 사람들의 스냅 사진들이 숫자의 관점에서 사진의 대부분을 구성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장르로서 역사의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런 사진들이 심미적인 특성을 뛰어넘는 성취가 있음에도 역사의 관점에서 적용받는 비평적인 시선들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상투적인 미감과 성격으로 인해, 관련 사진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2]

개인의 직접적인 시야로 일상 속에서 소중히 여기는 지점을 촬영한

---

[2] Batchen Geoffrey, *Each Wild Idea: Writing, Photography, History* (Cambridge, Massachusetts : MIT Press, 2000), pp.57-58.

‘버내큘러 사진’은 상투적 이미지를 매체로 토속적인 개인의 역사를 드러내고, 나아가 무의식적으로 공유되는 보편적 정서의 가치를 환기한다. 예를 들면, 반려견과 함께 촬영한 가족사진, 목걸이에 들어있는 반려자의 초상 사진 등을 보며 우리는 개별적인 개인사를 경유해 촬영 행위의 기반에 깔려있는 감정적 정서를 떠올릴 수 있다. 반면, 내가 모은 사진들은 개인의 역사와 서사를 드러내는 인물들이 사라져 일반적인 풍경만이 남는다. 상투적 이미지의 가치와 내포된 보편적 정서를 찾는 방식에서 구체적인 개인사가 없더라도, 정적인 상투적 풍경들에서 이미 공유되는 특정한 감정적 정서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2.2 개인 사진첩의 생산 환경 변화와 공유

나의 생활 반경 안에서 촬영한 사진들의 피사체는 같은 현상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볼 수 있다는 성질로 인해 타인이 촬영한 기록물 안에서 빈번히 등장한다. 이러한 모습은 주로 온라인 환경을 통해 관찰된다. 2010년경 스마트폰의 대중적 보급과 함께 시작된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의 촘촘한 연결은 말하기도 고루한 현대 사회의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등장한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사진을 주요 매체로 소통하면서 개인의 일상 사진을 유통하는 핵심 채널로 자리하여, 그 안에서 타인의 시선에 대한 관찰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의 점진적 발달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했다. 과거에는 전문가용 기기로 촬영된 사진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의 질적 차이가 뚜렷하여, 후자의 경우 사진의 낮은 화질로 인해 온라인 환경 안에서 돌고 도는 자투리 이미지들과 질적 구분이 어려웠다. 개인들이 촬영한 사진은 무의식적으로 전문가의 것보다 낮은 가치 판단을 받으며 주목받지 못하거나 경시되는 경우가 잦았다. 내장 카메라의 기술적 발달은 오늘날 촬영된 개인의 일상 이미지를 단순히 웹상에서 휘발되는 사진이 아닌, 보다 개별적 가치를 갖는 사진으로서 위상을 높였다.

카메라 모듈의 물리적인 향상 외에, 사진이라 부르는 디지털 이미지

의 처리 기술도 제조사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는 해당 시장 안에서 높은 수준의 사진 기능이 사용자들에게 유효한 구매 동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처리 기술의 고도화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촬영물의 질적 간극을 좁히는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되었고, SNS와 함께 사람들의 습관적 일상 사진의 촬영을 활성화했다.

나는 이러한 개발 과정 안에서 차별화를 위해 제조사마다 사진의 색감 처리를 다르게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 주요 내용은 특정 제조사의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이 더 '감성적'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안의 의견이었다. 사람들은 애플의 카메라 성능이 훨씬 감성적인 사진 촬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었다. 이는 사진 결과물에서 화이트 밸런스(White Balance) 값이 노란 빛이 두드러진다는 지점에서 나온 의견이었는데, 감성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노란 빛이라는 단순한 효과로 쉽게 이끌어질 수 있는 점이 흥미롭고 이상하게 느껴졌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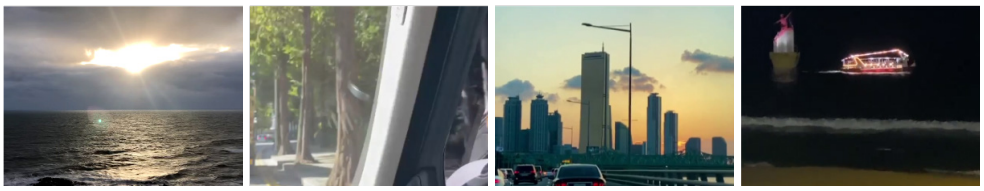
개인의 상투적 이미지 생산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사진이 업데이트되는 SNS에서 두드러진다. SNS의 대부분은 사진을 매체로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스마트폰 카메라의 고도화로 일정한 퀄리티 이상의 사진을 통해 타인의 개인적 시선을 빠르게 간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SNS 안에서 생산된 질적 데이터를 통해 얼마나 유사한 일상 사진들을 이용자들이 공유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범주화하여 살필 수 있다. 이러한 범주화 안에서 나는 상투적인 이미지들이 '감성', 혹은 '감성 사진'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았다. 이는 나에게 다소 의아한 지점이었다. 일반적인 소재를 담고 있는 상투적 이미지들이 어떻게 감성과 연결되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본인이 일상 속에서 사진을 촬영하며 경험했던 생각과 일부 닿아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에서 중의적 의의가 있다. 하나는 상투적 사진에 내포한 다양한 의미가 '감성'이라는 한 단어로 범주화되면서, '감성'이란 개념의 추상화를 가속하고 더욱 납작하게 인식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

3 "기억색이란 경험에 의해 고정관념으로 인식되어 있는 색을 말한다. 보통 빨강, 주황, 노랑 계열의 따뜻한 색채의 기억색이 강하게 인지된다." 심현준, 노연숙,「스마트폰 카메라의 피부색 재현과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35권 1호, 2021, p.3.

수렴 현상이 역설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공유되는 상투적 이미지에 내포한 서정성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다음 장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상투적 이미지 안에서 '감성적'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부분을 분석해보고, 타인들 또한 어렴풋하게 느끼는 상투적 이미지를 보았을 때 얻는 감성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연유에 대해 추적하려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람들은 행위의 희귀성으로 인한 기념 촬영이 아닌, 계절의 변화를 특징하는 풍경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색의 변화와 같은 평범한 사진들을 생산한다. 이러한 피사체들은 특정한 조건 없이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기에 유사한 상투적 사진들은 온라인 환경을 통해 흔히 관찰된다. 일상에서 특정한 감성적 정서를 자아내는 상투적 피사체를 촬영한 이미지를 설명하는 안에서, 상투적 이미지가 온라인 환경 내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감성'이라는 키워드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모습을 관찰했다. 이러한 사회적 관점을 수용하고 '상투적(常套的)'의 사전적 의미[4]에 기대어 본 논문에서 해당 이미지를 '상투적 감성 이미지'로 정의했다.



〔참고 도판 1〕 온라인 환경 안에서 수집한 타인의 상투적 감성 이미지 예시[5]

4 상투적(常套的)이란 "늘 써서 버릇이 되다시피 한 것"이라는 명사 의미가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5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통해 촬영자의 동의 후 수집하였다.

3. 상투적 감성 이미지의 도피적 가능성

3.1 풍경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미지

상투적 감성 이미지들은 현실과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익명화되어 현실과 유리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지점은 상투적 감성 이미지가 개인에게 도피처로 기능하도록 도움을 준다. '도피'란 나에게 현실에서부터 구분되어 멀어지고 싶은 마음인데, 이는 상투적 감성 이미지에서 현실과 거리감이 발생하는 지점들을 찾도록 만들었다.

나에게 상투적 감성 이미지들은 촬영이라는 행위적인 측면으로 현실로부터 거리감의 발생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스쳐 지나는 평범한 장면, 풍경 안에서의 촬영은 끝없이 이어지는 질긴 현실의 연속성에서 대상을 지정된 자리와 환경에서부터 건져낸다. 수잔 손택(Susan Sontag, 1933~2004)은 사진은 그 매체 특성상 현실의 모습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피사체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즉각적인 밀접한 접근은 또 다른 거리감을 만들어 내는데, 이미지의 형태로 세계의 어떤 부분을 소유한다는 것은 결국 현실과 거리감을 다시 체험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6] 현실의 장면이 복제되고, 디지털 픽셀, 종이의 잉크 같은 물질에 기대어 물질화되는 것은 피사체가 실제 현실에서 벗어나 원래의 자리와 만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는 일이다. 이러한 사진의 특징은 결국 상투적 이미지를 현실이라기보다 하나의 이미지로서 접근하게 만든다. 좋았던 특정 장면이 복제되고, 그것이 이동 가능한 데이터의 상태가 되면서 상투적 소재의 감성 이미지는 풍경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며, 현실이지만 현실이 아닌 정제된 것이 된다.

현실이 아닌 상투적 감성 이미지에서 주체의 흔적은 더욱 흐려지며 현실과 거리를 만든다. 피사체가 빛이나, 창문 밖의 변화하는 시간과 계절성을 띠는 일상적 이미지들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은 강화된다. 순

---

[6] Susan Sontag, 이재원 옮김, 『사진에 관하여』 (서울 : 이후, 2005), p.234.

간의 일시성을 지니지만 그 현상이 일상 안에서 반복되어 유사한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개인들이 유사한 이미지들을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이미지에 생기는 익명성으로 인해 상투적 감성 이미지에서 현실의 흔적은 더욱 희미하다. 두드러지는 개별성이나 희귀성이 없기에, 대상의 일상성만이 두드러져 그 안의 보편적인 정서만을 강조하게 된다.

상투적 감성 이미지가 현실로부터 떨어지고, 독립적인 이미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자의 사례로 노래방 기기에서의 경험이 있다. 노래방의 기기에선 가사와 더불어 여러 이미지가 나오는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중 '자연 모드'는 상황과 연관성이 없는 바다와 산의 이미지들을 무작위로 송출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특정 맥락이 없어 자연의 보편적인 시각성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작품 2). 노래 가사의 텍스트만이 구체적 정보로서 자연 이미지와 중첩되어 그 안에서 낭만적인 상상이 개입하게 하였다. 상상을 통해 나는 기기의 화면에만 몰입했는데, 종료 후 노래방의 특정 분위기가 다시 환기되는 상황 안에서 음악보다 자연 이미지의 인상이 뚜렷이 남는 모습이 자각되며 내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명확해졌다.

〔작품 2〕 <누군가를 흔들어 깨우는 모습>, 2019, 아이폰, 텍스트, 싱글 채널 비디오, 무음, 1분 14초 *비디오 스틸 이미지

피사체가 특정인에게 사진으로 소유됨에 따라 발생하는 원본과의 거리감, 보편적인 상투적 이미지가 갖는 구체적인 인물이나 서사에 대한 정보가 사라진다는 익명성에서 상투적 이미지는 하나의 도화지와 같은 속성을 갖게 된다. 이미지에 생긴 서사적 여백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상상이 개입될 자리를 만든다.

사진이란 매체의 특성과 익명성이 피사체로부터의 현실에서 거리감과 다른 맥락의 개입 가능성을 만들어 주었다면, 떨어져 나온 상투적 감성 이미지를 다시 현실 속 공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사진이라 부르는 이미지가 공간 속에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름이나 픽셀과 같은 최소한의 물질이 필요한 것처럼, 상투적 감성 이미지의 작동을 위해서 촬영한 이미지들이 공간을 점유해 입체적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입체 조형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과 방법들과 결합되었다. 상투적 감성 이미지가 공간에 서기 위한 우선 조건은 이미지를 지탱하는 구조의 자체적인 기립이었다. 구조의 내구성이 견고하거나 약한 것과 상관없이 공간에 이미지를 받쳐 스스로 놓일 수 있다면, 하나의 독립적 개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촬영한 상투적 감성 이미지들처럼 일시적 형상을 하고 있는 구조물을 찾아보며, 최소한의 서 있을 수 있는 지지체로서 구조를 갖췄는지에 초점을 뒀다. 가림막, 표지판, 바리게이트와 같은 간이 설치물들을 참고하였다. 이미지를 지지할 종이, 종이를 지지할 보드, 보드를 지지할 각목 등 필요한 재료를 추가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가변적이고 쉽게 해체될 수 있는 구조물로 제작했다. 상투적 감성 이미지가 그 안에 존재하는 사진의 매체적인 거리감을 넘어서, 독립적이지만 임시적인 모습으로 공간 안에 서서 물리적으로 현실과 분리되게 하였다.

3.2 상투적 이미지 안의 노스탤지어와 거리감

연구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상투적 이미지

들의 관찰을 통해 알게 된 바로 상투적 감성 이미지는 특정한 서정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소위 말하는 감성적인 측면인데, 나에게 '감성적'이라 얘기되는 상태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모습이다. 도피하고자 하는 부정적 대상이 현재의 상태이고, 그러한 현실과 유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미지의 선택과 그것이 물리적으로 설 수 있는 형식의 제작을 통해 도피하고자 하는 방향은 현실과 다른 따뜻함만이 남아있는 감성적 현실이다.

〔참고 도판 2〕 Edward Hopper, <Shakespeare At Dusk>, 1935, Oil on canvas. (출처 : sotheby's.com)

〔참고 도판 3〕 Edward Hopper, <Sun in an Empty Room>, 1963, Oil on canvas. (출처 : whitney.org)

상투적 감성 이미지는 현실로부터 떨어진 거리감을 통해 감정적 도피 가능성이 있는 통로로 작동한다. 이러한 가능성의 예시로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1882~1967)의 그림을 들 수 있다. 그는 셰익스피어 동상이 있는 어스름한 공원이나, 방 안을 비추는 나른한 햇빛의 상투적 이미지 안에서 풍경의 심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하나의 감성적 이미지를 제작했다. 사람이 가득한 활기찬 장면이 아닌, 상투적 풍경만 남은 정적인 공간은 현실로부터 거리를 만드는 이상적 이미지 구현의 한 사례이다.

이러한 '감성'이라는 이상화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선 복잡한 현실 문제가 없는 상투적 풍경이나 소재를 담고, 거기에 더해지는 노스탤지어를 촉발하는 요소들이 중요하다.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인 '거

리감'은 상투적 감성 이미지와 그 안의 공유되는 '서정성'을 불러일으킨다 추정되는 요소이다. 상투적 감성 이미지 안에는 대상을 소유하는 행위인 촬영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사진이란 매체의 한계에서 오는 '거리감'이 존재한다.[7] 이는 노스탤지어의 작동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노스탤지어는 주체의 지정학적, 심리적 이상향과의 불일치로 인한 '거리감'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 "노스탤지어는 상실감과 변위의 감정이기도 하지만, 자신만의 환상이 담긴 로맨스이기도 하다.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사랑은 오직 장거리 연애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 노스탤지어의 영화적 이미지는 이중으로 드러나거나, 국내와 해외, 과거와 현재, 꿈과 일상과 같은 두 이미지가 중첩된다. 우리가 강제로 그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드는 순간, 작동이 멈추거나 휘발된다."[8]

상투적 감성 이미지의 현실과의 거리감에서 사람들은 노스탤지어를 느낀다. 익숙하지만 접근할 수 없는 상투적 감성 이미지는 서사적 여백을 만들어, 개인의 상상이 개입 가능하게 돕는다. 상상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의 마음과 연결된다. 과거에 없었던 특정 대상이나 일들이, 미래에는 존재할 것이라 생각하는 평온한 이상적 상태를 향한 마음이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노스탤지어에 대한 상상을 통해 사람들은 상투적 이미지 안에서 '감성적'일 수 있다. 현실의 투영처럼 보이는 상투적 감성 이미지의 보편적 성격과 동시에 감각되는 현실로부터의 거리감은 익숙한 풍경에 노스탤지어를 부르고, 미처 오지 않은 미래의 이상적 상상을 비춘다. 나아가 이상적인 미래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부르는 상투적 감성 이미지를 심리적 도피처로서 작동 가능하도록 만든다. 볼 수 있지만 접

---

7 위의 책, p.36.

8 "Nostalgia is a sentiment of loss and displacement, but it is also a romance with one's own fantasy. Nostalgic love can only survive in a long-distance relationship. A cinematic image of nostalgia is a double exposure, or a superimposition of two images—of home and abroad, past and present, dream and everyday life. The moment we try to force it into a single image, it brakes the frame or burns the surface.", Boym Svetlana, 『The future of nostalgia』 (New York : Basic Books, 2001), pp.XIII-XIV.

근할 수 없는 토템처럼 상투적 감성 이미지는 미래의 이상향과 거리를 유지하고, 거리감은 지속적인 노스탤지어의 환기를 통해 감성적 상태를 강화한다.

〔작품 3〕 <Letter from henry>, 2019, 아크릴 상자, 커튼, 조명, 편지, 100×40×160cm

이러한 상상은 작업 과정 안에서 상투적 이미지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부둣가에서 바라보는 배나 거리의 가로등, 산등성이의 초소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노란 빛의 조명은 그것의 물리적 거리감에 비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대상이다. 이는 노란 조명이라는 이미지가 지시하는 불을 켠 사람의 흔적 때문이다. 우리는 불 켠 인물에 대한 구체적 사실 정보는 알지 못하지만, 눈앞에 존재하는 조명 빛을 보며 어떤 인물이 그 불을 밝히는 장면과 처한 상황을 떠올린다. 그리고 먼 곳의 노란 불빛을 친밀하게 느끼게 된다.

먼 노란 조명의 시각적 관찰과 그 안에서 이어지는 상상에서 다르게 경험되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은 앞서 언급한 노스탤지어의 작동 방식

인 신체와 심리적 이상향의 불일치와 연결된다. 나는 노란 불빛을 하나의 노스탤지어적 상징물로 생각하고, 이러한 상징물이 갖는 사람의 흔적에 대한 지시성과 이를 차단하는 장치들을 이용해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조형적으로 구현하려는 작업을 진행했다(작품 3).

이를 위해 나는 노란 조명과 개인적 이야기를 지닌 오브제를 함께 사용했는데, 당시 온라인으로 만난 친구와의 채팅 내용이 담긴 편지이다. 친구는 자신을 헨리(Henry)라 소개하며 나이와 사는 곳 등의 여러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다.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소개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었다. 생김새도 모르고 인적 정보의 사실 여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헨리와 대화는 약 9개월 동안 이어졌다.

나에게 상대와의 대화는 인상적인 일이었다. 존재한다는 사실만 확신할 수 있고, 실제 모습을 비롯한 사실 정보를 모르는 대상과 내면적인 얘기를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모순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던 연유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구체화하는 사회적 정보보다, 주고받는 대화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내면적 정보와 그로 인해 내 안에 만들어지는 상상이 관계를 견인하는 기반 요소가 아닐까 생각했다.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 깊게 알게 되는 일은, 가상에 가까운 온라인 친구와 멀리 존재하는 노란 조명 빛의 심리적 거리감을 중첩시켰다. 모두 물리적 실체를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멀지만 심리적으로는 가깝고, 뚜렷하진 않지만 분명 어딘가 존재한다는 공통점 때문이었다.

나는 헨리가 나에게 해주었던 말들을 편집하여 편지의 형식으로 만들었다. 내용은 주로 상대의 말이지만 나의 개인사를 투영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있다. 투명 아크릴 상자 가장 안쪽에 편지를 배치하고 앞쪽에 빈 곳을 비추는 스탠드를 설치해 이 안에 무언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편지가 보관된 아크릴 상자의 안쪽 부분은 검은 커튼을 덮어 편지 내용을 볼 수 없도록 가렸다. 아크릴의 좌대는 붉은 커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색상의 조합은 마술 상자나 연극 무대와 같은 현실에서 분리된 이미지를 만든다. 상자의 안을 고요한 다른 공

간이나 사적인 보관함과 같은 인상을 주려 하였다. 관람자는 언제든 상자에 덮인 검은 커튼을 열어 비치된 편지의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작품이 전시장이라는 공간에 놓이면서 사람이 커튼을 여는 일을 방해한다.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지시를 전달하는 노란 조명의 방향을 통해서만 편지를 볼 수 있는 형식을 통해 접근할 수 없는 거리감을 표현하려 했다. 노스탤지어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미 관념적으로 존재하게 된 하나의 아름다웠던 순간, 완벽한 장면과 일치하지 못하는 현재의 지점에서 발생하는 거리감으로 발생한다. <Letter from Henry> (작품 3)에서 보인 투명 아크릴, 커튼, 조명과 편지의 요소를 활용한 표현은 노스탤지어를 자아낸다고 추정되는 거리감을 조형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일이었다. <Letter from Henry> 제작 후, 거리감과 함께 상투적 이미지 안에서 노스탤지어를 자아내는 시각적 요소들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는가 관심이 생겼다.

4. 상투적 감성 이미지의 심상 강조

4.1 색과 시간의 흐름을 통해 서정성 드러내기

앞서 상투적 이미지에서 감성적인 측면을 찾고,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을 노스탤지어의 개념을 통해 이해하려 시도했다. 상투적 감성 이미지의 작동 방식에 대한 관심은 '거리감'과 같은 노스탤지어를 자아내는 요소를 찾고, 이를 작품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옮겨갔다.

'색'은 상투적 이미지 안에서 노스탤지어 작동 방식의 요인에 부합되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Letter from Henry> (작품 3)에서 언급했던 조명의 노란 빛은 노스탤지어를 상징하는 대표적 색으로 대중매체 안에서 반복되어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만화나 영화의 연출에서 노을 질 무렵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서로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감성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하나의 상투적 표현이다. 평범한 장면 안에서 색을 통해 특정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모습에 흥미를 느끼고, 상투적 이미지에 노란 필터를 덧입혔을 때 그것이 하나의 개인적 노스탤지어 이미지로 유사한 효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연구했다. <여름의 행진> (작품 4)은 이러한 관심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나의 작업실 자리에는 나무가 보이는 창문이 있어, 나무와 창밖 풍경의 변화를 살피는 일은 하루 일과 중 하나였다. 매일의 비슷한 모습은 마치 정지된 풍경처럼 보여 창틀과 유리, 하늘과 나무 같은 모든 요소들이 각각 입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서로 들러붙은 하나의 평면처럼 느껴졌다. 한 해가 끝나갈 무렵에는 정적이었던 풍경은 어느새 겨울 모습이 되어 순식간에 다른 이미지로 바뀐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친숙한 겨울 풍경이 낯설게 느껴진 감상은 여름부터 창과 풍경을 관찰한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했다. 이러한 관찰 경험은 창을 여러 레이어들이 겹쳐진 하나의 이미지 상태로 가정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공간에 다시 늘어지고 나열되는 조형적 풍경을 상상하게 했다. 일정한 시간 흐름의 결과

인 현 상태의 창문 안에서 변화해온 시간과 계절에 대한 기억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창문은 우연적으로 발견한 소재였지만, 노스탤지어를 드러내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문은 관찰자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유리된 상태로 보도록 한다. 일상적 장면을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거리감은 노스탤지어를 만들어 익숙한 상투적 이미지 안에서 감성적인 측면이 작동하도록 한다.

창문이 주요 소재인 작품의 전체적 형태는 실제 원본 사이즈에 맞춘 창문 이미지를 사진으로 제작하고, 그것이 실재 창문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모습으로 구성했다. 하나의 창문이 쏟아지는 것처럼 반복되는 이미지는 컴퓨터 처리 성능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컴퓨터 화면 속 윈도우가 순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오류에서 기인했다. 또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기본 카드 게임으로 탑재된 '프리셀(Freecell)'의 엔딩 장면을 떠올렸다.[9] 두 가지 이미지는 내게 짧은 시간이 순간적으로 늘어지는 하나의 상징적 장면으로 남아있다.

실제 제작은 원본 피사체인 창문의 촬영과 이를 활용한 디지털 편집을 통해 진행되었다. 창문을 최대한 왜곡 없는 모습으로 촬영하고 카메라가 가진 화각과 처리 과정으로 인해 왜곡된 모양을 디지털 가공을 통해 실제의 모습에 근접하게 맞추었다. 재현된 창문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쏟아지는 형태로 배치한 뒤, 내려오는 창문의 형태에 노란색 그라데이션(Gradation) 필터를 입혀 원본 창문에서 멀어질수록 노란빛으로 짙어지도록 했다. 노란 필터는 시간 흐름에 대한 경험을 창문에 암시하면서 노스탤지어를 강화시키는 장치이다. 인위적인 색의 덧입힘을 통해 노을이나 특정한 계절의 심상을 가리켜 상투적 이미지의 감성적인 측면을 끌어내려 시도했다. 마지막 창문의 색은 원래의 모습에서부터 노스탤지어를 상징하는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진다. 일률적인 창문 사진은

9 카드 게임 '프리셀(Freecell)'은 뒤섞인 트럼프 카드를 알파벳에서 큰 숫자까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모으는 게임이다. 윈도우 운영체제에 탑재된 프리셀 게임은 모든 카드의 정리에 성공하면 그것들이 다시 아래로 쏟아지는 엔딩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에 쌓아온 것들이 물처럼 사라지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어떤 일을 축하하는 하나의 방법 같다는 개인적 감상이 있다.

변하지 않지만, 그 위에 노스탤지어로 애기되는 색상을 덧입혀 일상의 맥락과 약간의 거리를 만드는 감성적 표현이 가능한지 실험했다.

나아가 이러한 변형이 현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낭만적 상상을 개입하여, 현실에서 떨어진 노스탤지어의 상태로 개인의 이상적 도피처를 수행하도록 제작되었다. 작품이 도피처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원본 창문과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공간 속에 물리적으로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 작품은 디지털 출력한 사진들이 공간에 서기 위해 필요한 최소 단위의 구조를 이미지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이미지를 지지할 잉크, 잉크를 지지할 종이, 종이를 지지할 보드, 보드를 지지할 각목 등을 선택해 더하여 이미지가 부각되는 간이 구조물로 제작했다. 상투적 감성 이미지가 임시적으로 공간 속에 서있는 모습을 통해 사진 매체의 평면적 특징을 완화하고, 원본 창문과 이미지로 연속성을 갖으면서 동시에 개별적인 입체 작품으로서 현실과 분리된 모습을 표현하려 했다.

<여름의 행진> (작품 4) 작업 후 상투적 이미지에 노란색 필터를 씌운다는 인위적인 측면에서, 창문의 자체적인 시간 흐름에 따른 색의 변화를 담아, 보다 자연스러운 색을 이용한 형식적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유리에 시트지가 붙어있어 창의 풍경보다 색을 관찰하기 좋은 전시장을 찾아, 해당 공간 안의 창문을 관찰하며 시간대별로 변화해가는 색의 모습을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앞서 언급했던 창문이 여러 레이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상태란 상상 속에서 레이어의 속성을 시간의 흐름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레이어로 이루어진 창의 과거-현재-미래 시간이 창의 표면에 응축되어 있다고 상상하고, 그중 특정 시간들을 색상으로 추출해 사진과 입체 표지판에 고착시켜 한 공간에 존재하는 모습을 표현하려 했다. 하나의 서정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문학에서 서정시의 시간 흐름의 내용을 참고한다.[10] 한 공간에 존

10 구체적 사건을 묘사하는 '서사'는 과거→현재→미래 또는 미래→현재→과거의 선형적 시간의 흐름을 갖는다. 서정시는 서사시와 달리 과거→현재←미래, 과거←현재→미래의 "현재를 중심으로 수축하거나 팽창하는 시간이다."고 말한다. 전동진, 『서정시의 시간성 시간의 서정성』 (광주 : 문학들, 2008), p.23.

재할 수 없는 여러 시간대의 모습을 변화하는 색상의 연속성을 통해 드러내, 향유자가 오르고 내리는 색상의 연속성 안에서 현재의 창문과 비교하여 작품을 관찰하는 시점에 이미 지나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보도록 했다.

작품 제작은 전시 공간의 창문을 소재로 앞서 제작한 <여름의 행진> (작품 4)과 다른 방향의 디지털 가공을 통해 진행되었다. <밤을 향해 내려오는 라사의 창문> (작품 5)의 차이점은 창문의 형태를 수정하고 위에 필터를 덧입히는 것이 아닌, 각 시간대 별로 촬영한 사진을 육안을 기준으로 실제 창문과 유사한 색감으로 조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전시 공간에 있는 조명들과 창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의 간섭으로 카메라가 보는 빛과 눈으로 보는 빛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창문의 흰 틀과 낮의 흰색에 가까운 유리 색감을 우리는 눈으로 동시에 느낄 수 있지만, 카메라는 창틀과 유리를 모두 밝게 처리하면 이미지에 하얀 빛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창문의 흰색 틀이나 유리가 실제보다 조금 더 어둡거나 밝게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사진 샘플과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카메라가 조정한 부분을 공간의 창문과 맞추는 일이 주된 디지털 가공이었다. 이후 출력된 창의 이미지들은 프린트되어 종이를 비롯한 물리적 매체를 통해 실제 공간에 피사체와 병치되게 설치했다. 이러한 설치는 관람자로 하여금 공간의 평범한 요소인 창문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창문을 통해 경험한 나의 시간의 흐름을 공유한다.

디지털 편집 과정 안에서 나는 기존의 사진에 대한 신뢰에 변화가 생겼다. 사진이라 불리는 디지털 이미지들이 해당 피사체를 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때문에 컸던 기존의 사진에 대한 믿음에 의심이 들었다. 눈으로 보며 카메라와 컴퓨터가 만든 왜곡을 수정해야 실제와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진이란 매체가 갖는 한계점이 경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의 보완을 위한 제작 연구를 다음 장에서 서술한다.

〔작품 4〕 <여름의 행진>, 2019, 디지털 프린트, 스티로폼, 각목, 160×80×230cm
*일부

〔참고 도판 4〕 <여름의 행진>, 2019, 각목, 스티로폼, 디지털 프린트, 216×320×255cm

〔작품 5〕 <밤을 향해 내려오는 라사의 창문>, 2022, 디지털 프린트, 각목, 폼보드, 바퀴, 138×185×250cm

4.2 직관적 재현과 반복되는 표현 형식

피사체의 이미지를 붙잡는 사진에 대한 의구심과 작품으로서 쉽게 망가지는 종이를 비롯한 사용 재료의 연약한 내구성은 상투적 감성 이미지를 담는 방법의 물리적 보완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사진을 이용한 입체 작품 제작에서 사진 자체를 형식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아닌 사진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조형 요소들에 집중하였다. 이미지 안에서 관찰되는 사물과 색, 구조적 요소를 직관적인 형태로 읽고 해당 요소가 갖고 있는 심상을 살피고자 했다.

예를 들면, 햇빛이 드는 높지 않은 벽돌담과 아래의 화단에 꽃이 피어있는 사진을 보고, 사진에서 드러나는 요소들과 기억 속 존재하는 온도를 떠올리며 이미지를 재현하고자 했다. 구조물과 기호적 형태에 가까운 종이꽃, 색을 만들고 출력한 OHP필름을 이용해 제작했다(참고 도판 4). 또는 발견된 오브제의 관찰을 통한 사물의 변환 과정을 살폈다. 길거리의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철 조각이 여러 환경 요인을 통해 녹이 슬어가는 과정을 관찰했다. 철 조각은 버려진 상태에서 앞서 진행했던 작품들에서 사용했던 노란 빛을 띠었다. 낭만적 속성과 전혀 상관없는 금속이 특정한 분위기를 갖으며 하나의 상투적 감성 이미지를 만든다는 지점에서, 물질을 통한 노스탤지어의 표현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다. 철 조각은 삼각형의 모양과 안에 둥근 구멍이 나 있었는데, 여기에 <따뜻한 피자> (참고 도판 5)라는 수집한 상투적 감성 이미지를 이어 붙인 영상 <따뜻한 피자> (작품 1)와 같은 이름을 지었다. 구체적 대상의 이름은 재현의 한 방법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철 조각이 갓 구워진 '따뜻한 피자'처럼 느껴지도록 지시하고, 사물의 이미지에 내포된 낭만적인 심상을 강화한다. 천천히 흐르는 시간들이 발현되며 드러나는 서정적 속성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만 포착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변환 과정에서도 감각되는 점을 다른 작품과 이름의 연결을 통해 설명하려 했다.

〔참고 도판 5〕 리서치 과정 중 선행 연구 사진, 2021

〔참고 도판 6〕 <따뜻한 피자>, 2021, 철, 10×35×35cm

이미지의 구성 요소의 직관적인 형태를 재현하고, 물질을 통한 상투적 감성 이미지의 노스탤지어 구현 가능성을 알아본 선행 연구들은 햇빛에 대해 주목하게 했다. 햇빛은 연구자의 직관적인 이끌림을 바탕으로 기존의 사진 촬영 안에서 자주 등장했던 소재면서, 태생적으로 비교적 명확한 형상을 가지며 동시에 따뜻한 심상을 자아낸다는 특징에서 사진 매체를 벗어난 상투적 감성 이미지 제작의 조건을 수행하기 적합해 보였다.

> “방 안의 침대에 누워 어느 틈새로 들어와 벽에 걸린 빛들을 보며, 모두에게 가장 공평한 위안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소재는 햇빛이 아닐까 생각했다.
>
> 겨울에 눈 내린 나뭇가지를 손가락으로 툭 치면, 흰 덩어리들이 투두둑 소리 내며 떨어지는 것처럼
>
> 내 방을 만약 두 손으로 잡고 흔든다면, 햇빛이 벽에서 투둑 투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풍경을 상상했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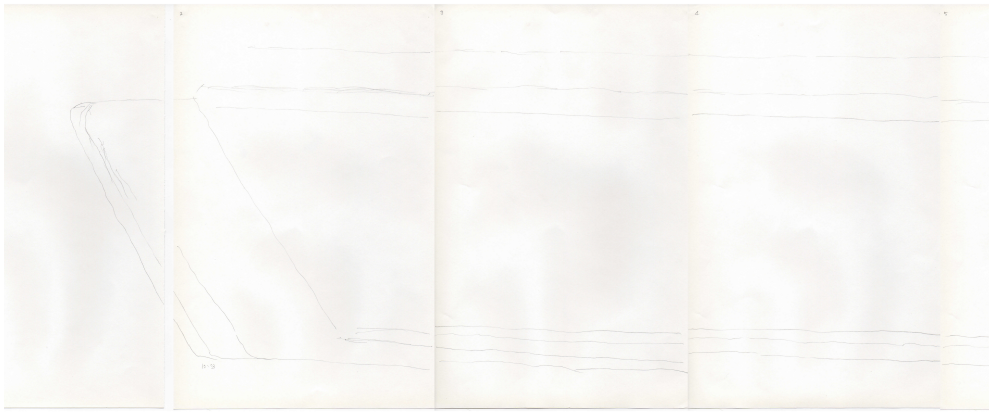
햇빛의 심상을 드러내는 방법은 사진 촬영을 통해 상투적 감성 이미지를 현실에서 분리하여, 노스탤지어로 대표되는 감성적 측면을 드러내려한 방법과 유사하다. 나는 작업 노트의 상상처럼, 햇빛이 현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연구 목적에 맞게 작품의 결과물이 사진이 아닌 물질로서 드러나야 했다.

이를 위해 사진이 아닌 종이와 연필로 햇빛의 외곽선을 따라 그려 스케치를 만들었다. 확정된 외곽선 스케치를 밑면으로 기준 삼아 흙과 유토를 쌓아올려 두께를 주었다. 두께의 기준은 대상 햇빛을 관찰했을 때, 햇빛이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빛의 색이 얼마나 짙었는지를 참고하여 제작했다. 점토 원형은 캐스팅 기법을 통해 다른 재료로 전환되었다. 사용된 재료는 석고와 레진이 주를 이룬다. 두 재료는 기본적인 캐스팅 재료로서 작가적 개성을 소거하고, 만들어진 대상의 형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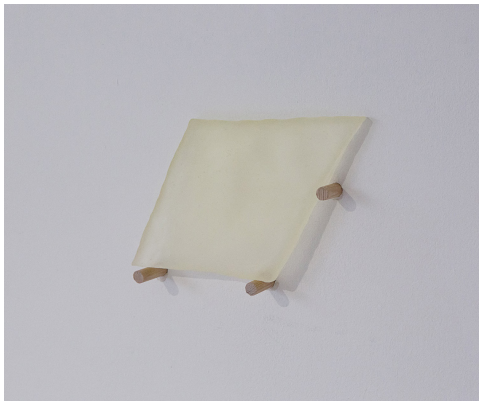
[11] 2022년 8월 중 작가 노트, <햇빛을 만드는 방법> (작품 7)의 제작 과정에서 작성했다.

심상을 최대한 그대로 보전해 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석고는 햇빛 스케치 원형이 가진 외곽선의 모양을 집중해 보기 위한 재료로서 사용했다. 레진은 조색이 용이하고 시간에 따라 황변(黃變)되는 재료의 속성을 이용해 햇빛의 시각적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벽과 바닥으로부터 툭하고 떨어진> (작품 6)은 이러한 과정에 대한 정리의 모습으로 설치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재현 불가능하지만, 그 중 가장 재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만들어 보려는 태도로써 늘어지는 햇빛의 나른한 심상을 탐구하고, 재현 불가능한 것에 닿기 위한 방법의 모색을 통해 상투적인 햇빛 이미지 안의 담긴 짧은 순간의 노스탤지어를 지속해 드러내려 하였다.

〔작품 6〕 <벽과 바닥으로부터 툭하고 떨어진>, 2022, 종이, 연필, 레진, 석고, 152×30×25cm



〔참고 도판 7〕 <벽과 바닥으로부터 툭하고 떨어진>, 2022, 종이, 연필, 152×30cm *일부



〔참고 도판 8〕 <벽과 바닥으로부터 툭하고 떨어진>, 2022, 레진, 19×11×1.5cm

〔참고 도판 9〕 <벽과 바닥으로부터 툭하고 떨어진>, 2022, 석고, 25×11×2cm

햇빛의 모양을 제작하는 방법은 한 공간에서 나를 둘러싼 여러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생활에 맞춰 이동하는 상투적 풍경 속에서 순간의 장면들을 사진으로 촬영했던 일처럼, 공간에서 우연히 마주하게 되는 햇빛에 집중해 여러 모양들을 수집했다. 주로 불이 켜지지 않은 방 안에 들어온 상태로 명암의 강한 대비로 인해 햇빛의 형체가 분명할 때 스케치를 그렸다. 같은 장소를 비슷한 시간대에 가면 공간에는 유사한 빛의 모양이 반복된다. 이미 그렸던 햇빛도 다른 날 다시 눈에 들어오면 모양을 스케치했다.

빛은 늘 같은 모습으로 방이나 창에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해가 드는 시·공간과 빛의 매개체의 형태와 물성의 복합성에 따라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 따라서 햇빛을 재현한 모양도 유사하지만, 다양한 모양으로 반복 및 변주되었다. 수집된 스케치를 소조하는 과정에서 햇빛 외곽선의 선명함에 따라 표면의 질감 처리를 달리했다. 아주 뚜렷한 형체의 구분이 있을 때는 매끄럽고, 부드럽고 흐린 경우 점토의 요철을 살려 표면을 처리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햇빛 형체의 선명함은 존재감과 연결되어 소조의 최종 입체 형태의 상상에 영향을 미쳤다. 공간에 거의 붙어 있는 평면적인 상태, 분리되어 완전한 입체로 이루어진 상태, 한 면이 평평한 부조와 같은 상태 등 다양한 모습으로 원형을 제작했다. 마지막으로 수집한 햇빛을 촬영한 사진들을 참고하여 조색한 반투명한 레진으로 최대한 해당 빛의 색을 재현하려 했다. 한편 일련의 정해진 순서로 햇빛의 모양을 만드는 일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다. 규칙적 방법에 따라 캐스팅을 하고, 점토를 손으로 빚는 반복적인 작업은 명상처럼 현실적 문제나 상황들, 내면의 고민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제작 과정 안에서 경험한 편안함은 작품 소재인 햇빛의 심상과도 연결되었다.

햇빛 이미지의 재현을 위한 다양한 표현 방법은 공간의 표면에만 존재하는 햇빛이 물질로 재현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과정 중 개입된 상상들은 작업의 방향을 햇빛 모양의 형태 재현 목적에서 햇빛의 심상을 재현하는 쪽으로 이끌었다. 비물질적 소재의 재현을 위해 대상의 기억을 떠올릴수록 개입되는 감성적 상상은 내면에서의 햇빛의 심상을 구체화했다. 제작을 반복할수록, 햇빛 조각들은 노란 빛의 조약돌 모양에 가까워졌다.

<햇빛을 만드는 방법> (작품 7)의 다양한 햇빛 조각의 반복은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 안에서 순간적으로 지속되는 상투적 이미지를 경험하며 느끼는 심리적 안도감을 드러낸다. 변화하는 날씨와 기분 안에서 햇빛은 잠시나마 그 모습을 유지하며 다시 나타날 것을 약속하고, 짧지만 확실한 믿음으로서 작동한다. 노란 레진들로 구체화된 반복되는 조각들은 햇빛의 이미지가 가상이 아닌 관찰을 통한 현실이라는 것은 강조한다. 제

작 과정에서 떠올리는 햇빛의 심상은 반복되는 상상을 통해 내면에서 강해지고, 상투적 감성 이미지의 도피적 역할에 대한 단초 역할을 한다. 상투적 현실에 기대어있지만, 햇빛의 모양과 느낌의 서정적 심상에 집중해 입체화된 오브제로 분리된 햇빛 조각은 오롯한 평온의 상상이 가능한 일상의 기념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작품 7〕 <햇빛을 만드는 방법>, 2022, 에폭시 레진, 가변적 크기

5. 나가며

상투적 이미지 안에서 서정적인 감각과 분위기를 느끼며, 그것이 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작품으로 재현할 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메시지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나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지점에서 그 중요성에 비해 늘 명료히 정리하기 힘들었다. 또한 작품으로 표현되었을 때, 관람자의 경험과 감각이 저마다 다르기에 이러한 연구가 타인에게 얼마만큼 설득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하고, 상투적 감성 이미지의 심상을 시각적 효과로 전달하는 방법 정리를 통해 언어로 전달되기 어려운 '감성'이란 정서의 공유 한계점을 스스로 타계하려 하였다.

상투적 감성 이미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 사진 촬영의 이유와 상투적 이미지 촬영의 차이를 분석하고, 동시대 개인의 일상 사진들의 생산과 공유 환경의 변화 안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맥락을 통해 상투적 감성 이미지를 정의했다. 상투적 감성 이미지 안의 '감성'이 발생하는 지점을 사진 매체의 특징으로 인한 현실과의 거리감과 노스탤지어의 작동 방식에서 드러나는 거리감을 연결 지어 살폈다. 현실로부터 멀어진 감성적인 분위기를 띠는 상태를 하나의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도피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에 대해 작품 제작을 통해 확인하며 찾았다.

연구 과정 안에서 분석한 '거리감', '색', '재현'의 일련 요소들을 활용한 작품 제작으로 상투적 감성 이미지가 현실과 분리될 가능성을 확인하려 했다. 하나의 작품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요소의 개별적 구현은 관념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 보다 체계적인 방법적 수행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작품 안에서 객관적인 미술 언어의 효과로 기능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발견한 요소들의 유기적인 결합을 활용한 작품 제작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상투적 이미지라는 심심한 주제를 작업 소재로 이용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일은 보편적인 미술의 작업 방법론과 다소 거리가 있

다고 얘기될 수 있다. 나는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가 상투적이란 클리셰로 부르는 특정 시점에서 주변의 보편적 이미지에 대한 해석이 멈추는 일을 멈추고 싶다. 미술 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재현 방식을 이용하여 상투적 감성 이미지를 노스탤지어의 관점에서 다시 재현했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물이 다시 평범한 이미지로 남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 이미지의 시각적 공유 가능성을 살폈다. 무언가를 그리고, 조각하는 재현을 통해 현재를 붙잡는 의미에서 미술의 근원적인 시작점에 대해 논의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모든 것이 과잉된 사회 안에서 살아간다. 본 연구로 평범한 이미지의 가치에 대해 다시 이야기 나눌 것으로 기대한다.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수많은 이미지, 정보에 노출된 환경 속에서 경쟁한다. 종래에 결국 나의 곁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상투적 감성 이미지를 통해 반문한다. 본인에게 마음이 어려울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대단한 조언이나 명사의 연설보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나 지난 어느 하루의 날씨를 떠올리는 일이었음을 상기해보며, 이를 통해 제작된 작업들이 삶에서 스치는 상투적 감성 이미지 안의 풍경과 사물들에 대한 관심사를 확장하여, 향유자의 기억 속에서 각자의 유사한 경험을 환기해 하나의 무해한 저마다의 도피처를 향한 통로로서 작동해 줄 것을 기대한다.

도판 목차

1. 작품 목차

〔작품 1〕 <따뜻한 피자>, 2019, 아이폰으로 촬영한 싱글 채널 비디오, 무음, 3분 *비디오 스틸 이미지 ····· 8

〔작품 2〕 <누군가를 흔들어 깨우는 모습>, 2019, 아이폰, 텍스트, 싱글 채널 비디오, 무음, 1분 14초 *비디오 스틸 이미지 ····· 14

〔작품 3〕 <Letter from henry>, 2019, 아크릴 상자, 커튼, 조명, 편지, 100×40×160cm ····· 18

〔작품 4〕 <여름의 행진>, 2019, 디지털 프린트, 스티로폼, 각목, 160×80×230cm *일부 ····· 25

〔작품 5〕 <밤을 향해 내려오는 라사의 창문>, 2022, 디지털 프린트, 각목, 폼보드, 바퀴, 138×185×250cm ····· 26

〔작품 6〕 <벽과 바닥으로부터 툭하고 떨어진>, 2022, 종이, 연필, 레진, 석고, 152×30×25cm ····· 30

〔작품 7〕 <햇빛을 만드는 방법>, 2022, 에폭시 레진, 가변적 크기 ····· 33

2. 참고 도판 목차

〔참고 도판 1〕 온라인 환경 안에서 수집한 타인의 상투적 감성 이미지 예시 ····· 12

〔참고 도판 2〕 Edward Hopper, <Shakespeare At Dusk>, 1935,
Oil on canvas. (출처 : sotheby's.com) …… 16

〔참고 도판 3〕 Edward Hopper, <Sun in an Empty Room>, 1963,
Oil on canvas. (출처 : whitney.org) …… 16

〔참고 도판 4〕 <여름의 행진>, 2019, 각목, 스티로폼,
디지털 프린트, 216×320×255cm …… 26

〔참고 도판 5〕 리서치 과정 중 선행 연구 사진, 2021 …… 28

〔참고 도판 6〕 <따뜻한 피자>, 2021, 철, 10×35×35cm …… 28

〔참고 도판 7〕 <벽과 바닥으로부터 툭하고 떨어진>, 2022,
종이, 연필, 152×30cm *일부 …… 31

〔참고 도판 8〕 <벽과 바닥으로부터 툭하고 떨어진>, 2022,
레진, 19×11×1.5cm …… 31

〔참고 도판 9〕 <벽과 바닥으로부터 툭하고 떨어진>, 2022,
석고, 25×11×2cm …… 31

참고 문헌

단행본

전동진,『서정시의 시간성 시간의 서정성』, 광주 : 문학들, 2008

Batchen Geoffrey, *Each Wild Idea: Writing, Photography, History*, Cambridge, Massachusetts : MIT Press, 2000

Boym Svetlana, *The future of nostalgia*, New York : Basic Books, 2001

Susan Sontag, 이재원 옮김,『사진에 관하여』, 서울 : 이후, 2005

논문

심현준, 노연숙,「스마트폰 카메라의 피부색 재현과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 35권 1호, 2021

Abstract

A Study on the Escapist Role of Sentimental Cliché Images

Gwon, Mincheol
Department of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stereotypical images classified as emotional cliché through the concept of nostalgia. It demonstrates that art production utilizing cliché images can explore the possibility of images as a means of escape from reality.

To me, everyday life embodies constancy and therefore can be found in and around familiar places. I photograph daily objects and landscapes that I feel intuitively drawn to, and witness the phenomena of cliché images similar to the photographs of my own being produced and distributed labeled with the term, 'sentimental'. Centered around my photography, this paper classifies photographs that capture common subjects as 'Sentimental Cliché Images' and explores the underlying sentiment of these images subconsciously shared by the general public.

On the premise that the emotional aspect of a cliché image represented as nostalgia becomes prominent as the image is separated

from reality, I aim to investigate the operation principles of ambiguous 'sentiment' by relating a sense of distance created by nostalgia and one created due to the limitation of photography. Moreover, I suggest nostalgia that appears in the gap between reality and the sensibility represented by photography as a utopian destination for escape.

This paper explains the elements and expressions that are used to visually intensify a sense of nostalgia in my work that utilizes collected images of sentimental cliché. I analyze elements that compose a sense of nostalgia in a cliché image such as 'a sense of distance', 'color', and 'representation' and identify the same elements in my work.

By revealing feelings or moments experienced in daily life that cannot be fully described in words in my work, I intend to examine whether a sentimental cliché image can operate as a personal and emotional refuge.

Keywords : Sentimental Cliché Image, Escapist Role, Photography, Nostalgia, Emotion
Student Number : 2019-27474